

# 동문환(董文煥)과 조선 문인의 추회창화시(秋懷唱和詩) 연구

김려화\*

1. 서론
2. '비추(悲秋)의 공명을 일으킨 동문환의 창시(唱詩)
3. '추회(秋懷) 신의(新意)를 표출한 조선문인의 화시(和詩)
4. 결론

## <국문초록>

청나라 관료 문인 동문환(董文煥)은 1861년에 추회시(秋懷詩) 8수를 지었다. 이에 대해 화답시를 지은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는 조선 문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원명(李源命), 이용숙(李容肅), 박영보(朴永輔), 박봉빈(朴鳳彬), 임치학(林致學), 이상직(李尙迪), 조휘림(趙徽林), 김윤식(金允植), 변원규(卞元圭), 심영경(沈英慶)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지은 작품을 '추회창화시'라고 부르기로 한다.

동문환의 추회시 중 첫 수는 '가을의 슬픔[悲秋]'을 토로하였으며 자연의 무상함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연상시켰다. 조선 문인들의 화시는 창시와 같은 시적 소재를 형상화하거나 동일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공감을 표출하고 창시에 호응하였다. 임치학의 창시 같은 경우에는 용사(用事)를 통해 '비추'에 대한 공감을 승화시켰다. 동문환의 두 번째 추회시는 탈속적인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는데 이 역시 조선 문인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이원명은 창시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 용사를 통해 창시에

\* 서울대 박사수료

대한 공감을 표현하였다.

조선 인사들의 화시는 동문환 창시의 ‘비추’ 정서에 맞춰 지은 것도 있지만 창시와 매우 다른, 새로운 면모를 지닌 ‘추회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면모의 추회시’는 주제의식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우정을 노래하는 ‘교우시(交友詩)’ 내지 ‘회우시(懷友詩)’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교류의 의지를 보여준 ‘자면시(自勉詩)’이다. 이상적인 벗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옛 벗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회우시를 통해 가을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원명의 시는 망년지교에 대한 갈구를 드러내 전형적인 교우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선 문인들은 창화를 통해 학문교류의 소망도 표출하였는데 특히 변원규는 네 번째 창시에 대한 차운시를 ‘자면시’로 구현하여 청나라 지식인과의 학문교류를 위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경향의 ‘추회시’는 조선 문인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특정된 회포를 읊은 시들이다. 이용숙의 국내외 시국을 우려하는 화시와 박영보의 모화 정서를 표출하는 화시가 그 대표적 작품이다.

조선 문인들의 추회창화시는 한시의 전통 주제인 ‘비추’의 정서를 대부분 계승하면서도 그들의 창안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내용을 한시 창작에 이입시킴으로써 한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한시창작의 시대적 역량을 구축하였다. 또한 동문환과 조선 문인들의 추회창화시는 당시의 활발했던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한·중 교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추회창화시(秋懷唱和詩), 비추(悲秋), 창시(唱詩), 화시(和詩), 동문환(董文煥), 조선 문인.

## 1. 서론

1861년 여름, 청나라 관료 문인 동문환(董文煥:1833~1877)은 북경에서 가을의 회포를 읊은 ‘추회시(秋懷詩)’ 8수를 지었다. 이 8수의 한시는 모두 5언 8구의 고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이 추회시들을 동인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들은 모두 화시(和詩)를 지어 다시 동문환에게 보내주었다. 일년도 안 되는 사이에 화시를 지어준 사람의 수가 30명까지 늘었다. 그는 이 화시들을 소중히 여겨 1862년 정월에 『추회창화집(秋懷唱和集)』을 편찬하여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도 동문환의 추회시에 창화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서 결국 그는 1864년에 또 『추회창화집』의 속집을 간행하게 되었다.<sup>1)</sup> 속집을 엮어 간행할 때까지도 창화시를 보낸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추회창화시의 봄’ 내지 ‘추회창화시의 유행’을 일으켰던 셈이다. 이들의 ‘추회시 창화’ 활동은 선행 연구에서 만청(晩淸) 시단의 중요한 시 창작 활동으로 간주되었다.<sup>2)</sup>

창화시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는 왕헌(王軒), 풍지기(馮志沂), 허종형(許宗衡), 조수길(趙樹吉), 황운곡(黃雲鵠), 공헌이(孔憲彝), 하조영(何兆瀛), 하경(何璟) 등 당시 북경에서 문명이 높았던 청나라 문인사대부들도 있었지만 동문환과 교류했던 조선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1862년 동지사 정사 이원명(李源命:1807~1887)과 역관 이용숙(李容肅:1818~?), 1863년 북경에 도착한 동지사 부사 박영보(朴永輔:1808~?), 그의 아들 박봉빈(朴鳳彬:1838~?)과 역관 임치학(林致學:~?), 그리고 여러 번의 여행에서 수역(首譯)을 담당했던 이상적(李尙迪:1804~1865) 등이 창화시를 지었는데 이

1) 劉婧은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唱和詩集『秋懷唱和詩』 연구 - 서지 및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6, 한중인문학회, 2012에서 동문환이 추회창화시를 창작한 배경과 과정, 조선 문인들과 창화한 경위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秋懷唱和詩』 初集의 간행은 사실 수 차례 보각본(補刻本) 간인 과정을 걸쳤던 것으로 확인된다. 동문환의 일기에 따르면 그는 1862년 2월 3일에 간인된 『秋懷唱和初集』 20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월 30일, 4월 6일에 또 각각 20본을 간인하였다. 5월 27일에 또 10본을 간인하라고 하였다. 이때까지 간행한 『추회창화시』에는 이용숙, 박영보, 임치학, 박봉빈, 이상적의 화시가 수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1863년 정월 7일에 간인을 맡았던 龍文齋의 사람이 이용숙의 시를 가져갔고 11일에 또 박영보의 시를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12일에 박봉빈이 차운시를 지었고 18일에 임치학이 차운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2월3일에 용문齋에서 『추회창화초집』 30본을 간인하였는데 이 때 간인한 시집에는 위의 조선인들의 작품이 수록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그 해 4월 14일에 조희림의 추회창화시를 받았는데 그의 작품이 속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63년 2월 3일에 간인한 것이 아마 마지막 초집이었을 것이다. (李豫, 『董硯樵先生年譜長編』, 董壽平·李豫 主編, 『洪洞董氏日記六種』 제6권,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42면~67면)

2) 夏勇, 「論清代中外唱和集的概貌與特質」, 『晉中學院學報』 28, 2011와 張瑞杰, 「清代山西詩歌研究」, 蘇州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은 모두 동문환의 『추회창화집』이 당시 시단의 대표적 창화시 작품군임을 지적하였다.

들이 지은 시는 모두 『추회창화집』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1861년에 문안사 정사로 북경에 갔던 조휘림(趙徽林:1808~?)은 동문환과 교유한 후, 1864년에 창화시를 지어 보내주었는데 그의 작품은 『추회창화집』 속집에 수록되었다.<sup>3)</sup> 그 외에 1864년에 문인 김윤식(金允植:1835~1922), 1866년에 역관으로 북경에 간 변원규(卞元圭:1837~1896), 문인 심영경(沈英慶:??~?) 등도 추회시에 대한 차운시를 지었다. 김윤식의 추회창화시는 그의 문집 『운양집(雲養集)』<sup>4)</sup>에 수록되어 있고, 변원규와 심영경의 작품은 동문환과 조선 문인의 시문교류 성과를 정리한 자료 『한객시존(韓客詩存)』<sup>5)</sup>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문환의 추회시에 차운하여 창화시를 지은 조선인은 총 10명이고 작품은 80수이다.

그러므로 1861부터 1866년까지 연행한 문인들 사이에서 ‘추회창화(秋懷唱和)’ 열풍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청나라 문인의 시에 대해 조선 인사들까지 동조해서 차운했다는 것은 그의 창시(唱詩)가 우수한 작품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화시를 지은 사람들과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시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적어도 한 두 수의 ‘가을의 회포[秋懷]’를 노래한 시를 읊었을 것이다. ‘추회시’는 그만큼 한시 창작에 있어서 중요하고 전통적인 소재이다. 한·중 문인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작시(酬酌詩), 송별시(送別詩), 기행시(紀行詩)와 달리, ‘추회’는 창작주체의 내면을 드러내는 주제이기 때문에 시인들은 이를 통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사유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인의 감정과 사유는 사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서 생긴 것

3) 조선 문인들의 화시는 다른 청나라 문인들의 화시와 마찬가지로 모두 ‘秋懷八首和韻’라는 제목을 붙여 『추회창화시』와 그 속집에 수록되었다. 동문환과 관련된 이들의 연행 시기는 김명호의 『董文煥의 『韓客詩存』과 韓中文學交流』,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394면을 참조하였다.

4) 『雲養集』 제1권, 『詩·擊磬集』에 수록되어 있다. 제목은 <秋日遣興, 步董文煥秋懷詩韻>이다. 제목 아래 작은 글자로 “文煥清人, 官翰林檢討, 號研秋, 有秋懷詩八首, 一時名士皆和之”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격경집』에 수록된 시는 모두 김윤식이 1854년부터 1864년까지 歸川天雲樓에서 지은 것인데, 창작시기로 미루어 이 시들은 그가 동문환과 직접 교류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조선에 전해 온 동문환의 창시를 보고 차운시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5) 『韓客詩存』, 書目文獻出版社, 1996은 중국 山西大學의 李豫 교수가 동문환의 일기와 시문집 그리고 다른 청나라 사람의 저술에서 조선과 청나라 인사들이 주고받은 시문을 두루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김명호, 앞의 논문 참조. 그리고 『한객시존』에 따르면 변원규와 심영경의 추회시는 원래 『硯樵山房日記』에 수록되어 있었다.

이므로 타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타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니 타자로 하여금 시상(詩想)을 일으키게도 하는 것이다. 19세기 한·중문인 사이에 창화 열풍이 분 이유는 1차적으로 추회시에 본래 이와 같은 성격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회창화집』이나 동문환과 조선문인의 ‘추회창화시’에 대한 언급은 종종 있었으나<sup>6)</sup> 아직 본격적으로 해당 작품들을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sup>7)</sup> 이에 본고는 동문환과 조선 문인의 추회창화시를 고찰대상으로 삼아 동문환의 추회시가 조선 문인들에게 어떤 공감을 일으켰는지, 또 조선 문인들의 추회창화시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9세기 후반 한·중 문인 사이에서 창작된 추회창화시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 2. ‘비추(悲秋)’의 공명을 일으킨 동문환의 창시(唱詩)

동문환은 추회시를 짓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화답시와 함께 엮어 간행한 이유를 『추회창화집』의 서문<sup>8)</sup>에서 설명한 바 있다. 서문에는 주로 동문

6) 김명호, 앞의 논문; 유정, 앞의 논문; 이춘희, 『19세기 韓·中 文學交流-李尙迪를 중심으로』, 새문사, 2009.

7) 王增斌은 「簡論山西近代詩人董文煥的詩歌創作」(『晉陽學刊』 5, 山西省社會科學院, 1991)에서 처음으로 동문환의 <추회창화시>를 언급하였으며 이 시를 ‘感嘆身世, 抒懷寫志’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董國炎은 「論董文煥詩風嬗變」과 「董文煥的詩論」(董壽平, 李豫 主編, 앞의 책)에서 <추회창화시>를 동문환이 孟郊와 賈島를 배운 대표작으로 꼽고 있었다. 그 후로 李雪梅는 「文章貽珠玉蕭瑟數浮生-淺談洪洞詩人董文煥生平及其詩歌創作成就」(『滄桑』 55, 山西省史志研究院, 2006)에서, 張瑞杰는 앞의 논문에서 모두 동국염의 논조를 수용하고 동문환의 <추회창화시> 중의 개별 작품을 간단히 살폈다.

8) 신유년(1861) 여름에 문을 닫고 마음을 조용하게 하며 시를 읊음으로 스스로 시름을 풀었다. 성정은 본디 그윽하고 근심이 많으니 가을을 만나 더욱 감개가 많아졌다. 좋은 밤이 점점 길어지니 까닭 없이 심금이 울렸다. 날이 쌀 무렵에 스스로 그만 둘 수 없어마침내 시 여덟 수를 지어 ‘추회’라고 명명하고는 감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顧齋 王軒이 이 시를 보고 좋게 여겨 이에 노래를 지어 보내주었다. 곧 海秋 許宗衡과 魯川 馮志沂 두 선생에게 보여드렸는데 모두 수고하셨다. 일시의 同人들이 모두 찬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시를 읊기 좋아하는 詩友들이 즉시 첩문하였다. 작성된 글들을 간수하여 상자에 두었으나 차마 혼자 간직할 수 없으므로 판각에 새겨놓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편찬에 전념하였고 그것을 編次하는데 앞뒤의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작시의 선후에 따라

환이 추회시를 짓게 된 배경<sup>9)</sup>, 수창이 이루어진 경위, 문집 간행의 이유, 수록사항 등이 밝혀져 있다. 간행 이유를 단지 “혼자 간직할 수 없음(不忍自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차운시들이 모두 수작(秀作)임을 말한 것이다. 즉 자신이 받은 창화시들이 모두 훌륭한 작품이므로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어서 『추회창화집』을 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동 손님들이 읊은 작품 역시 함께 수록하였다(海客聯吟, 亦并列焉)”라는 말은 조선 문인들이 지은 작품의 우수성에 대한 긍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동문환의 창시는 “추회팔수정제동인(秋懷八首呈諸同人)”이라는 제목 하에 『추회창화시』 시집에서 첫 번째 연작시로 등장한다. 제1수와 제2수는 특정한 가을 경치에 대한 묘사와 그 경치에 대해 느낀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시에 교차하여 배치하였다. 제3수부터 제5수까지는 앞의 두 시를 읊조리다가 가라앉힌 기분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한 형상과 서사에 사변적인 요소를 투입하여 ‘가을의 슬픔’을 이어가면서 심화시켰다.<sup>10)</sup> 제1수부터 제5수까지는 사물과 자아를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조락한 계절특징과 그로 인해 일어난 감회로 작품을 구성했다면, 제6수와 제7수는 감회의 초점을 전환시켜 오직 ‘사람의 일[人事]’에만 집중하여 논하고 있다.<sup>11)</sup> 그리고 마지막

하였고 보충한 화시들은 보여주신 대로 수록하였다. 해동 손님들이 읊은 작품은 역시 함께 수록하였다. 동치원년(1862) 정월 흥동 동문환(辛酉夏, 閉關習靜, 吟詠自遣, 性本幽憂, 逢秋多感, 良宵漸永, 觸緒無端, 叨吟兮中, 不能自己, 遂成八首, 命曰“秋懷”, 未敢示人也. 顧齋見而善之, 爰訊反歌. 輒以呈海秋魯川兩先生, 俱蒙首肯. 一時同人屬和, 遂多人事. 好永吟侶, 俄復疊韻. 既以出稿, 裝襲匪恆, 不忍自秘, 因付劖劂. 用志泥漚. 鶴跡編弟, 先復一位, 成詩早晚, 補和諸甚, 隨示隨梓. 海客聯吟, 亦并列焉. 同治元年正月 洪洞 董文煥)

- 9) 사실 이 서문에서 밝히지 않은 사회적 배경과 개인의 사정도 있다. 동문환이 추회시를 지었던 시기, 즉 1861년 여름에는 마치 제2차 아편전쟁 끝난 무렵인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熱河로 도망갔던 함풍황제가 영국·프랑스·러시아와 『北京條約』을 체결한 직전이다. 경성의 肅殺한 분위기가 동문환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가정생활에서도 喪妻의 불행을 겪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개인의 사정, 그리고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동문환은 1860년부터 孟郊와 賈島의 시에 심취하여 詩風도 큰 변화가 생겼다. 초년의 明快하고 淸秀한 시적 풍격과 비교했을 때 京官職을 역임했던 1860년-1867년에는 그의 작품들은 ‘孤寒’한 시적 풍격을 지니고 있었다. (董國炎, 앞의 논문 참조)
- 10) <秋懷八首呈諸同人>: (其三)“榮枯各有歸, 先後何能數. 萬緣強名之, 辭柯同一故. 蕪齋豈自別, 幽蛩爲哀訴. 葉落不上枝, 脩名思早樹.”(其四)“蚩蚩群僕子, 一飽無他求. 虛名誤來世, 白日坐自讎. 命運奇通塞, 蘊此無窮憂. 甯知大造力, 自春還自秋.”(其五)“大道本夷直, 末路生險穢. 杯酒指天日, 醒醉還相疑. 傾濟無坦步, 繫援有危基. 一羨與一憐, 悠悠豈多時.”
- 11) (其六)“貴人方得志, 流俗焉是非. 平生事千百, 蹉跎惜多違. 豈不念貧賤, 耳目久依稀. 誰能一寸地, 容此萬幽微.”(其七)“先我讀書人, 遠生古人後. 當其愁肝肺, 豈不思永久. 奈何當吾世,

제8수는 다시 ‘가을 슬픔’의 주제로 돌아와 한탄의 소리를 내었다.<sup>12)</sup>

이와 같은 동문환의 ‘추회’ 연작시를 주제의식 측면에서 볼 때, 그 구조는 ‘기(起)-승(承)-전(轉)-합(合)’에 매우 잘 부합된다. 제1, 2수에서는 슬픔의 감흥을 일으키고 제3, 4, 5수에서는 그 슬픔 감정을 이어가면서 발전시켰다. 제6, 7수에서는 앞과 다르게 ‘사물 대 사람’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환시킨 다음, 마지막 8수에서는 다시 소슬한 가을 경치와 자아의 시름을 결합함으로써 ‘비추’의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은 유기적인 구조는 ‘슬픈 가을과 가을의 슬픔[悲秋]’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로 이런 가을과 슬픔이 조선 문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선 그의 추회 연작시 중의 ‘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 2수를 대표로 삼아 이 시들이 어떻게 조선 문인들의 공감을 얻었고, 또 조선 문인들로 하여금 어떤 화시를 짓게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其一)

炎夏苦夜短 무더운 여름엔 밤이 짧아서 괴롭더니  
 秋至悲夜長 가을이 되자 도리어 밤이 길어 슬프구나.  
 寒鏡照不寐 차가운 불빛에 잠을 못 이루는데  
 耿耿難爲光 애타는 마음을 밝게 비추기 어렵네.  
 庭柯一葉動 정원 나뭇가지에 한 잎이 움직이더니  
 萬象非故常 세상 만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네.  
 浮生抱虛警 덧없는 인생에 두려움만 가득안고  
 令我思潁陽 지는 해를 생각하게 만드네.

창시의 첫 번째 작품인데 1, 2구부터 여름밤과 가을밤을 대비시킴으로써 아득한 가을밤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부터 시적 분위기를 ‘슬픔’으로 정해 놓았다. 이어 3, 4구에서는 희미한 등잔불이 밝게 비추지 못한다고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초조하고 불안한 정서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슬픔’을 한 층 심화시켰다. 5, 6구에서는 ‘나뭇가지에 한 잎’과

己先古人朽。掩卷空歎息，後亦如今否。”

12) (其八) “天高晝氣肅，彌日欺重陰。酸風激地籟，入耳無歡吟。壯盛爭遣此，焉知遲暮心。勿歎芳華晚，悲秋非自今。”

‘세상 만상’을 대비시킴으로써 자연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다. 자연의 무상함은 곧 인생의 무상함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사실은 인생의 무상함을 암시한 것이다. 7, 8구에서는 이런 무상함에 대해 느낀 바를 토로하면서 ‘지는 해’를 생각한다고 하여 인생의 말로를 연상시켰다. 특히 마지막 8구의 ‘퇴(頹)’ 자는 침울한 시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가을이 되면 인간의 정서가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은 이미 현대과학에서 증명되었다. 가을에 자연 속의 생물들이 쇠퇴하는 것을 보고 인간도 흘러가는 시간과 쇠퇴해 가는 생명에 대해 근심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정서들은 가을을 제재로 삼은 문학작품에서 ‘비추’ 정서로 드러나며 특히 한시에서는 망국(亡國), 이별(離別), 향수(鄉愁), 실의(失意), 유배(流配), 노쇠(老衰), 사망(死亡), 규원(閨怨) 등의 제재와 연결되곤 한다. 동문환의 추회시도 이러한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동문환이 ‘비추’의 작시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은 또한 전대 추회시를 교묘하게 답습한 데서도 확인된다. 연작시 형식으로 지은 오언고시 추회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는 맹교(孟郊)의 <추회십오수(秋懷十五首)>와 한유(韓愈)의 <추회십일수(秋懷十一首)>를 꼽을 수 있다. 동문환의 추회시는 시의 품격은 맹교의 작품을 모방하였으며<sup>13)</sup> 시어의 사용에서는 한유의 시를 배우고 있다. 위의 동문환 시 중의 7, 8구는 바로 한유 <추회십일수> 중의 “뜬 인생 비록 여러 갈래 길 있으나, 죽음에 이르는 길 오직 한 길 뿐(浮生雖多塗, 趨死惟一軌)”<sup>14)</sup>과 “갈래갈래 공연히 슬픔 걸어놓고, 쉽고 쉽게 빈 걱정 안고 있네(離離掛空悲, 感感抱虛警)”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한유 시의 시어를 원용함으로써 보다 더 풍부한 이면적인 내용을 담아 시에 무게감을 주었다.

동문환의 추회시는 이처럼 시작부터 슬픔으로 시적 분위기를 정해 놓은 것, 전형적인 가을 경치를 포착한 것, 한유 추회시의 시어를 원용한 것 등을 통해 조선 인사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원명은 연작시의 첫 구에서 “나는 본디 가을에 슬퍼하는 사람이니, 이때 하늘 보니 생각 더욱 깊어지네(我本

13) 각주 9번 참고. 동문환은 추회시 8수를 창작할 무렵에 <不寐口占>, <夜坐>, <枕上口占> 등 시를 지은 적 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中唐과 晚唐 시를 배우는 습작으로 볼 수 있다.

14) 한유의 <추회시> 번역은 高八美, 『<秋懷詩> 11首 考釋』, 『중국어문학』 9, 영남중국어문학회, 1985를 참조하였다.

悲秋士, 沈寥思彌長)”라고 하여 동문환의 “가을이 되자 도리어 밤이 길어 슬프구나(秋至悲夜長)”에 호응하였다. 심영경의 “아득한 가을밤 길고 길어(漫漫秋夜長)”<sup>15)</sup>, 박영보의 “가을밤 어찌 그리 길어(秋夜一何長)”<sup>16)</sup>, 김윤식의 “길고 긴 가을밤 아득하네(漫漫秋夜遠)”<sup>17)</sup> 등은 모두 동문환의 시구에 공감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한탄한 것이다. 동문환이 이 길고 긴 가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不寐)”<sup>18)</sup>이라고 하자 이용숙도 “잠자지 못해 책을 덮고 앉아 있어(不寐卷書坐)”<sup>18)</sup>라고 하였고, 박봉빈도 “이 때는 애가 타 잠을 잘 수 없네(是時耿不寐)”<sup>19)</sup>라고 동조하였다. 동문환이 이 첫 번째 창시의 후반부에서 자연과 인생의 무상함을 말한 것 역시 조선 문인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상적인 “덧없는 인생 순식간에 흘러가니, 반딧불의 작은 빛과 뭐가 다르리?(浮生轉眴間, 何異螢燭光)”<sup>20)</sup>라고 표현하였다.

조선 문인들의 화시는 동문환의 창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작품에서 ‘가을의 슬픔’을 토로하였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첫 작품에서 동문환의 첫 작품에 공감하여 표현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시와 같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경지를 표현하는 것도 ‘공감’의 한 종류이자 공감을 승화하는 방법이다. 임치학의 추회시 첫 수가 대표적인 경우다.

(其一)

倏爾明鏡裏 홀연히 환한 거울 속에서  
 條條華髮長 여러 가닥의 흰 머리를 보았네.  
 書劍俱不成 서검(書劍)을 모두 이루지 못하고  
 蹉跎恨年光 헛되이 세월 보낸 것 한스럽네.  
 逢秋多感慨 가을 되니 감개가 많아져서  
 懷抱異尋常 회포도 보통 때와는 다르지.

15) (其一) “志士感暮年, 漫漫秋夜長.”(『한객시존』, 앞의 책, 226면에도 수록되어 있다.)  
 16) (其一) “百年一何短, 秋夜一何長.”(『한객시존』, 앞의 책, 251면에도 수록되어 있다.)  
 17) (其一) “漫漫秋夜遠, 瀾瀾秋歌長.”(각주 4번 참고)  
 18) (其一) “不寐卷書坐, 誰肯借壁光.”(『한객시존』, 앞의 책, 250면에도 수록되어 있다.)  
 19) (其二) “是時耿不寐, 一時爐香碧.”(『한객시존』, 앞의 책, 254면에도 수록되어 있다.)  
 20) 이상적의 추회시 화시의 첫 번째 작품인데 『恩誦堂集續集』 『詩』 권9와 『한객시존』(앞의 책, 256면)에도 수록되어 있다.

先我有達觀 나보다 먼저 달관(達觀)한 자  
宋玉與歐陽 바로 송옥(宋玉)과 구양수(歐陽脩)라네.

이 시는 역시 가을 회포를 읊고 있으며 ‘비추’의 시적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2구는 이백(李白)의 유명한 오언연작시 <추포가(秋浦歌)><sup>21)</sup> 제15수의 시의(詩意)를 차용함으로써 함축적으로 가을의 시름을 드러냈다. 3, 4구에서는 시인의 가을 시름을 구체화시켰다. 독서와 무예에 모두 성취한 바가 없으니 흘러가는 세월을 원망하기만 한다는 것이다. 머리카락은 벌써 새 하얗게 세어버렸는데 아직 공명을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흰 머리를 더욱 의식하게 되면서 수심도 더욱 깊어진 듯하다. 이렇게 표출된 초조한 마음은 동문환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不寐)’ ‘애타는 이 마음(耿耿)’과 호응하고 있다. 유가의 가르침을 사상 기반으로 삼았던 전통시대 문인들은 가을을 통해 세상의 무상함을 실감하면서 더욱 공명(功名)을 빨리 이루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에서 하루라도 빨리 입신양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추회’ 계열의 시에서 자주 등장한다. 동문환의 추회시 <기삼(其三)>에서도 “낙엽은 다시 나뭇가지에 올라가지 못하니, 공명은 일찍부터 세워야 하네(葉落不上枝, 脩名思早樹)”라고 하였다. 공명을 성취하려는 생각에 이르면 자연스레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이 ‘비추’와 함께 하면 또 한 가지 근심을 자아낸다.

5와 6구에서는 시상을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였다. 예부터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시름이 많아지고 회포도 보통 때와 다르다. 다시 한 번 ‘비추’의 정서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7, 8구에서는 이런 ‘비추’의 정서를 극복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탈속적인 삶의 태도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 역시 전통에서 온 것임을 밝혔다. 즉 송옥의 <구변(九辯)>과 구양수의 <추성부(秋聲賦)><sup>22)</sup>에서 이미

21) 흰 머리카락 삼천 장이나 되는데/ 수심이 많아서 이렇게 길었구나/ 알 수 없네, 밝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어디서 가을 서리 같은 흰머리를 얻어왔는지.(白髮三千丈, 緣愁似箇長. 不知明鏡裏, 何處得秋霜.)

22) <九辯>의 결말은 가난한 선비[貧士]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슬픈 가을[悲秋]도 더 이상 슬프지 않게 그러했다. 그리고 <秋聲賦>에서는 마음을 평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욕심을 줄임으로써 번민을 해소하려는 노장(老莊) 사상을 나타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결말에서 가을의 슬픔을 극복한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달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비추’의 문학전통과 관련된 용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가을의 슬픔’을 토로하고 그 슬픔을 달래며 ‘비추’ 주제의식을 승화시키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

동문환의 두 번째 창시는 또 다른 가을의 회포를 보여주었다.

(其二)

初日不成曙 해가 막 뜨려고 하나 아직 아침은 밝지 않았고  
 疏雨猶殘滴 성긴 비 지나간 뒤에도 아직 물방울은 남아 있네.  
 靜耳多所憎 조용한 것을 즐기는 귀는 싫어하는 것 많은데  
 悽聲亦出壁 처량한 풀벌레 울음소리는 오히려 벽 뚫고 들러오네.  
 寸晷馳百年 촌음은 쓴살같이 인생을 보내는데  
 家山夢中碧 고향의 산은 꿈속에서만 푸르구나.  
 誰無世上懷 누군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으랴만  
 偃息負松石 자나 깨나 송석(松石)을 저버리는구나.

이 시는 자연경물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된다. 시간은 먼동이 트려고 할 무렵이라서 시인이 처한 공간은 아직 어두컴컴하다. 빗방울 소리도 요란스럽게 들리지만 벽에서 나온 것 같은 풀벌레 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들린다고 하였다. 3, 4구는 초조한 감정을 극대화시킨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초조한 마음이 생긴 이유를 5, 6구에서 밝히면서 이 시의 주지(主旨)인 ‘향수(鄉愁)’를 드러내고 있다. 꿈속에서 고향의 가을을 보며 가지 못하는 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비추’는 ‘향수’로 구체화되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다시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확장된다. 세속을 떠나지 못하니 은거생활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바위[松石]’를 항상 저버린다고 한 것이다. 끝부분에서 “탈속할 마음은 있으나 그렇지 못하니 또한 씩씩한 마음만 남았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 탈속에 대한 지향을 통해 시격(詩格)을 한 층 승화시켰다. 조선 문인들의 시 중에서는 이원명의 두 번째 화시가 위의 시에 대한 공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 (其二)

銀漢增皎潔 은하수는 맑고 밝은데  
 玉漏遲點滴 물시계는 톱방 톱방.  
 匡床悄無寐 편안한 침대에서도 조용히 잠 못 이루고  
 助歎蟲吟壁 벽에서 들려오는 벌레 울음소리 탄식을 돕네.  
 不負吾哀慵 나의 슬픔을 저버리지 않는 것  
 惟有前山碧 오로지 저 앞의 산의 푸름뿐이라네.  
 何時謝喧秋 어느 때 이 시끌벅적한 곳을 떠나  
 枕流復漱石 물을 베고 돌로 양치질을 할 수 있을까?

동문환이 첫 구에서 ‘해[初日]’를 말했기 때문에 이원명도 첫 구에서 하늘의 은하수를 묘사하였다. 그리고 2구에서는 물시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로 창시의 빗소리와 대응시켜 창시와 비슷한 적막한 분위기를 형성화하였다. 3, 4구 역시 창시를 따라 감정을 표현하면서 벌레소리를 이용하였다. 이 시에서는 벌레소리를 고요한 가을밤의 시인의 애탄과 병치함으로써 그 애탄의 소리를 계속 들려오는 벌레소리처럼 길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긴 탄식을 하니 수심도 깊게 느껴진다. 그리고 역시 창시처럼 후반부에서 애탄의 이유를 밝힌 다음 탈속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저 앞의 푸른 산이 시인의 슬픔을 달래준다는 것은 세속을 떠난 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 8구에서 시끌벅적한 세상을 멀리하고 은일생활을 하고 싶은 탈속의지를 밝혔다. ‘침류수석(枕流漱石)’이라는 진(晉)나라 손초(孫楚)의 전고를 교묘하게 사용해 창시에 압운을 하는 동시에,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에 대한 공명을 잘 드러낸 화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문환의 추회시, 특히 그 중의 ‘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 2수는 가을 경치를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또 탈속의 지향도 보여주고 있으며 ‘가을의 슬픔’의 미학을 구현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비추’ 문학전통을 통해 그는 조선 문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조선 문인들은 차운시에서 창시와 같은 소재나 시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식 범주에 속한 전고를 이용함으로써 동문환의 ‘비추’ 정서에 대한 공명을 표출하였다.

### 3. ‘추회(秋懷)’ 신의(新意)를 표출한 조선 문인의 화시(和詩)

그러나 ‘가을 회포(秋懷)’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감성이다. 때문에 추회시에서는 작가의 성격, 사유, 경험, 처지 등에 따라 가을 경치에 대한 각기 다른 감정이 표출된다. 그리고 같은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저자의 개성에 따라 시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 조선 문인들의 시를 살펴보면 그들은 일률적으로 창시의 ‘비추’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만의 개성을 발휘하여 ‘가을 회포’를 새롭게 표현했다. 동문환의 창시와 비교할 때 조선 문인들이 화시를 통해 개성적으로 표출한 주제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3.1. 우호(友好)를 추구하는 회우시(懷友詩), 교우시(交友詩)

조선 문인들의 화시에서 창시와 가장 다르게 표현된 주제는 바로 ‘교우(交友)’이다. 그들의 ‘가을 회포’에는 벗에 대한 그리움, 벗과 이별하는 아쉬움이 또 다른 ‘비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적인 조선에서 동문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회팔수화운(秋懷八首和韻)>을 지었는데 그의 차운시 제7수에는 이별의 비감(悲感)이 가득하다.

(其七)

車笠遍天下 수레 탄 나그네 천하를 두루 다니며  
 聯翩諸公後 여러 공들의 뒤 따라 읊조렸다네.  
 歡古難再卜 옛날처럼 즐기는 일 기약키 어렵구료  
 一別春明久 춘명문(春明門)에서 작별한 지도 오래었으니.  
 世路足風波 세상살이에 풍파도 많고 많아서  
 此身漸衰朽 이 몸도 점점 노쇠해가고 있다네.  
 欲寄雙鯉書 편지를 보내 안부라도 묻고 싶지만  
 得無浮沈否 도중에 없어지지는 않을지?

‘거림(車笠)’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 두터운 우정을 상징하는 말이다. 제1구는 이상적이 조선과 청나라에서 여러 계층 사람들과 맺은 폭 넓은 우

정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구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추회시를 차운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 다녀온 연행사를 통해 동문환의 추회시를 보게 되었다. ‘환고(歡古)’는 곧 ‘고환(古歡)’이며 지난날의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다. ‘춘명문(春明門)’은 당나라 때 장안의 성문 이름인데 여기서는 북경 도성의 문을 가리키며 북경을 상징한다. 따라서 3, 4구는 예전에 북경의 벗들과 함께 보낸 즐거움을 회고하는 것인데 벗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하여 만날 수 없는 슬픔을 드러냈다. 5, 6구에서는 자신이 노쇠하여 다시 연행길에 나서기 어렵다고 하여 그 슬픔을 더 구체화시켰다. 7, 8구에서는 편지라도 보내고 싶지만 잃어버릴까봐 걱정된다고 하여 슬픔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 시는 옛 벗을 그리워하는 ‘회우시’이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는 ‘교우시’이다.

이 작품은 이상적의 문집 『은송당집속집(恩誦堂集續集)』 「시(詩)」 권9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1862년에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집에 실린 시의 제목은 <동연추 검토가 추회시 화시를 청하였다(董研秋檢討索和秋懷)>이다. 동문환의 자는 연추(研秋)이다. 그는 1856년에 진사로 한림원의 개서길사(改庶吉士)에 역임하였고 그 1859년 4월부터 한림원 검토(檢討)직을 맡았다.<sup>23)</sup> 그 후로 여러 관직에 역임하였으며 1866년에 자신의 시에서 “옷에는 십년 동안 경성의 먼지를 입고 있었네(十年衣惹帝京塵).”<sup>24)</sup>라고 토로한 것처럼 10년 동안의 경성생활을 했던 것이다. 동문환이 북경에 있었던 동안 이상적은 3차례 연행을 갔었다.<sup>25)</sup> 1858년에 그의 10번째 연행 당시, 동문환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청나라 관료 문인 풍지기는 이미 이상적과 10년이 된 교분을 맺었고 또한 이상적에게 시를 지어 두 사람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sup>26)</sup> 한편 당시 부사였던 김영작(金永爵)의 재중손

23)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제6권, 13~74면 참조.

24) 劉夏清, 「試談董文煥在甘肅的遊宦經歷及其詩歌創作」, 『天水師範學院學報』 35, 天水師範學院, 2015, 6면 참조.

25) 10번째 연행은 1858년 10월에 출발하여 이듬해 3월 북경에 도착했던 謝恩兼冬至使이고, 11번째 연행은 1863년 2월부터 6월까지 북경에 다녀왔던 陳奏使이며, 마지막 연행은 1864년 1월부터 5월까지 다녀왔던 告訢請諭兼承襲使이다. (이상적의 使行 연표는 이준희, 앞의 책, 53~57면을 참조.)

26) <人日繡山年丈招同朝鮮李藕船樞使小集, 分韻得‘至’字>, <再集致經堂, 朝鮮李藕船以春明話雨圖屬題> (『한객시존』, 앞의 책, 128~129면.)

창의(昌熙)가 동문환과 교류하였고 김영작이 연행을 다녀 온 후 이듬해 동문환에게 <동연초 검토 문환에게 보낸다(寄董研樵檢討文煥)>란 시를 지어 보냈다. 이 시의 자주(自註)에서 그는 동문환의 청을 응해 그에게 시를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수역이었던 이상적도 동문환에 대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상적은 추회시 화시를 지을 당시 동문환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지 않았다.<sup>28)</sup> 하지만 상술 정황들을 보았을 때 그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이 이상적이거나 동문환과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있었음 추정할 수 있다. 하여 동문환은 나중에 동치 2년에 이상적을 만났을 때 “이 어르신(의 명성은 예전부터 알았네(此老舊知名))”<sup>29)</sup>라고 하였고, 이상적은 동문환의 청으로 추회시 화시를 지었는데 시에서 옛 벗들을 회상하면서 그들과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또한 동문환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원명은 1861년의 사은검도지사 정사였다. 그는 북경에 도착한 후 동문환과 교류하면서 화시를 지어 보냈다. 그의 세 번째 화시는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읊고 있는데 ‘비추’의 미학을 구현하기 위해 우정을 찬양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其三)

萬事總乘除 만사는 모두 오르내림의 이치가 있으니  
平生可默數 평생도록 그것을 속으로 헤아리리라.  
轉眄鬢已霜 순식간에 귀밑머리 하얗게 되고

27) 金永辭, 『邵亭稿』, 『詩稿』 권2.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祖庭盛事荷深知, 借問從何見我詩(再從孫昌熙, 前冬入燕交研樵, 歸時贈詩有曰: ‘歸向祖庭添盛事, 聲詩爲道補漁洋. 且言僕慣聞令再從祖大名, 亦得見詩數章, 可知卓然成大家, 中邦近年亦所罕見, 歸後須錄其詩若干首以寄, 將欲刊行云). 近日靜繙聲調譜(研樵著聲調四譜), 與君心契已多時.” 원문에서는 괄호 안 自註의 내용을 작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처음에 김영작의 재종손이 동문환과 교류하였다. 동문환이 김영작의 시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재종손에게 조선으로 돌아간 후 김영작의 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나중에 간행하겠다고 하였다.

28) 동문환의 일기는 1862년부터 1877년까지 기록한 것인데 이상적의 11, 12번째 연행 때 모두 이상적과 직접 만났다고 하였으나 1858년 이상적의 10번째 연행 때에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29) 동문환, 『春明雅集圖爲朝鮮李藕船題』, 『한객시존』(앞의 책), 217~218면.

閱歷世多故 세상의 일을 많이도 겪었네.  
 海內遇知己 해내에서 지음(知音)을 만나서  
 曷不衷情訴 어찌 진심을 토로하지 않으리?  
 莫嫌苔異岑 태(苔)와 잠(岑) 다르다고 혐의하지 마소  
 只願葭依樹 갈대가 나무에 기댈 수 있기만 바라네.

동문환은 세 번째 시의 1, 2구에서 “영고성쇠 각각 돌아갈 곳이 있는데 어찌 그 선후를 헤아릴 수 있으리(榮枯各有歸, 先後何能數)”라는 철학적 질문을 했다. 이에 이원명은 위 시에서 1, 2구로 노숙하게 대답하여 창시자(唱詩者)의 시름을 위로하였다. 이어 3, 4구에서는 자신이 나이가 많고 겪은 것도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원명이 이 시를 지을 때의 나이가 54세이고 동문환은 28세였으므로 두 사람은 나이 차가 많았다. 그럼에도 후반부에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망년지교를 읊고 있다. 또한 노쇠한 자신을 형성화함으로써 ‘비추’의 미학을 구현하였다. 5구는 당나라 왕발(王勃)의 <촉주로 부임하는 두소부를 보내며(送杜少府之任蜀州)> 중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지기가 있다면 땅 끝 외진 곳도 가까운 이웃집과 같으리(海內存知己, 天涯若比隣)”를 차용하였다. 이원명은 몸을 낮추어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동문환과 교분을 맺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태와 잠 다르다고 혐의하지 마소, 갈대가 나무에 기댈 수 있기만 바라네(莫嫌苔異岑, 只願葭依樹)”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하였다. ‘태’와 ‘잠’은 원래 함께 쓰는 용어로 뜻을 같이 하는 벗을 비유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둘을 나누어 자신과 동문환에 비유하고 있다. 자신이 동문환과 지역, 출신이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지식인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모증(毛曾)과 하후현(夏侯玄)의 고사에서 온 것이다.<sup>30)</sup> 이러한 표현들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평등한 우정과 교류를 추구하려는 뜻이 그 언외에 감춰져 있어서 ‘우호’를 드러내는 교우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원명은 마지막 제8수 창시에서도 “연조 지방의 감개비가지사여, 이 귀한 만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燕趙慷慨士, 奇會同古今)”<sup>31)</sup>라고 하여 동문환

30) 위명제(魏明帝) 때 모증(毛曾)은 하후현(夏侯玄)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자, “갈대가 옥 같은 나무에 기대어 있다(蒹葭依玉樹)”고 하였다.

31) 한유(韓愈)의 <송동소남서(送董邵南序)>에 “燕趙古稱多感慨悲歌之士”라고 하였다.

을 옛날 연나라와 조나라의 감개하여 슬피 노래하는 선비에 비유하며 다시 한 번 교우의 소망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회우시’, ‘교우시’ 성격이 강한 화시는 거의 모든 ‘추회창화시’를 지은 조선 문인들의 작품에서 확인된다. 그리하여 우정을 노래하는 것을 그들의 ‘추회창화시’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3.2. 학문교류를 기대하는 자면시(自勉詩)

앞서 동문환의 ‘추회시’ 가운데 두 번째 시를 살핀 바 있다. 그 작품의 맨 마지막 구절은 “누군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으랴만, 자나 깨나 송석을 저 버리는구나(誰無世上懷, 偃息負松石)”이다. 화창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선 문인들의 작품은 필시 동문환의 시를 압운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 번째 창시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石’자를 사용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 문인들 중 거의 절반은 그 위치에 ‘금석(金石)’으로 압운했다는 점이다.

물론 시어로써 ‘금석’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우선 ‘금석’은 종(鐘), 경(磬) 등 악기를 가리킬 때가 있다. 이상적은 “이따금 마음에 맞는 손님을 맞이하니, 노랫소리가 금석에서 나온 듯하네(時有會心客, 歌聲出金石)”라고 하며 즐거운 노랫소리를 악기소리에 비꼈는데 여기서 ‘금석’은 불후의 상징으로 곧 ‘굳은 우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휘림은 “손을 씻고 나서야<sup>32)</sup> 멀리서 온 시를 읽으며, 맺은 교분은 금석처럼 굳다네(盥薇攀遠詩, 把契論金石)”라고 하였다. 그리고 ‘금석’은 또한 뛰어난 문장을 뜻하기도 한다. 좋은 시문은 문구가 아름답고 읽을 때 소리의 울림이 있다. 박봉빈은 “<추성부>를 읽고 나니, 온 땅에 쟁쟁한 금석소리가 들리네(讀罷秋聲賦, 滿地鳴金石)”라고 하며 자신이 ‘가을 회포’를 푸는 방식으로 구양수의 <추성부>를 애독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여기의 ‘금석’은 쟁쟁한 악기소리로 보아도 되지만 뛰어난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좋다. 심영경은 “나에게 시 여덟 수를 전해주었더니, 해

32) 유종원(柳宗元)은 한유가 보내준 시를 받고 먼저 장미 이슬로 손을 씻고 향을 피운 다음에야 시를 읽었다. 관미(盥薇)는 이 전고에서 온 말로, 장미(薔薇) 이슬로 손을 씻는다는 뜻이다.

동에서 쟁쟁한 금석소리가 울리네(遺我八首詩, 海東鳴金石)”라고 하며 동문환의 ‘추회시’ 8수가 조선에서 뛰어난 시문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칭찬하였다.

이 시대에 이르러 ‘금석’을 언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금석문’, ‘금석학’일 터이다. 청대 이후 건가학과(乾嘉學派)의 고증학 영향으로 금석문 연구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청나라 문인들은 조선의 탁본을 수집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한·중문인들은 서예작품과 탁본 고적을 위주로 선물을 교환하였는데<sup>33)</sup> 이는 그들의 우정을 돈독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학문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금석’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문인들은 청나라 문인과 창화할 때 ‘금석’라는 시어를 애용하였다. 금석은 쉽게 금석문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당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금석학 교류를 고려하면 사실 조선 문인들은 이 단어를 통해 그들의 학문교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의 조선 문인들은 청나라의 학문에 관심이 많아 청나라 문인과 교류할 때 지적인 교류를 열망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역관 변원규의 넷 번째 화사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당시 화창시를 지은 조선 문인 가운데서 변원규는 비교적 젊은 편이었는데 그의 시에서는 학문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其四)

插架五千卷 저 책장에 꽂은 오천 권의 책  
 曾從燕市求 일찍이 유리창에서 사온 것이네.  
 師友古聖賢 옛 성현들을 사우(師友)로 삼아  
 昕夕勤校讎 밤낮 부지런히 서책 교정을 하네.  
 誤矣書生算 그러나 날 선비로 보면 잘 못된 것이요  
 悠哉曠世憂 그저 하염없이 전대의 걱정만 하는 뿐이네.  
 芳歲易清歇 꽃다운 봄은 쉽게 시드는 법  
 萬載起清秋 천만 년 역사는 맑은 가을부터 시작하네.

이 시는 시작부터 북경 유리창에서 책을 오천 권이나 사온 것을 과시하

33) 李豫, 「清季清人對韓國古籍碑拓的搜集整理」,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참조.

였다. 변원규는 역관 신분이었지만 문장이 뛰어나 연행을 통해 중국문인들과 교류를 맺었으며 훗날 청나라와의 외교의 장에서도 크게 활약했다. 이 시를 통해 그가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닦는 것에 몰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4구에는 자신이 책을 통해 고대의 성현들을 사우로 삼아 부지런히 서책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반듯한 수학자(修學者)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학문교류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5구과 6구에서는 자신이 책만 읽는 서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근심을 품고 있는, 나름의 경륜을 품은 인물이라는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끝의 7, 8구는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봄은 쉽게 흘러가지만 맑은 가을에 옛 것을 공부하며 자신을 면려하고 있다. 창화시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것은 상대와의 학문적 교류를 원하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문인들은 청나라 문인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우정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지적 교류도 열망하였다.

### 3.3. 각별한 회포를 보여주는 ‘추회시’

조선 문인들은 ‘추회창화시’에서 ‘교우’와 ‘학문교류’ 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 특별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라의 흥망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은 원래 ‘비추’ 시의 전통에 속하는 것이지만 국제정치를 우려하는 것 역시 ‘비추’ 계열 한시의 새로운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이용숙은 역관의 신분으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다.<sup>34)</sup> 그의 외교활동 범위는 조선·청나라·미국·일본을 두루 포괄한다. 따라서 이용숙은 국제정세에 대해 예민하게 느꼈으며 이는 그의 ‘추회시’에서도 반영된다. 다음은 그의 여섯 번째 화시이다.

34) 1866년 이용숙은 역관 신분으로 조정의 관리들을 따라 대동강에 정박한 미국상선 General Sherman호에 올라 미국인들과 담판하였다. 1876년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하였고 1879년에 憲書齋咨官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파견되었으며 1880년에 두 번째로 통신사수행원 신분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李豫, 『董硯樵先生年譜長編』, 앞의 책, 44~45면 참조)

## (其六)

金火相推<sup>35)</sup> 금과 화가 서로 바꾸어가며  
 俯仰歲將非 부양(俯仰)하는 사이에 세월이 다 가네.  
 時夏勞形役 때로 형체의 부림을 받아서  
 心事故多違 심사에 어긋남이 많다네.  
 世態浮雲幻 세상은 뜬구름처럼 변화가 많고  
 交舊晨星稀 사귄 벗은 새벽별처럼 적다네.  
 災異頻年見 재이(災異)가 해마다 자주 나타나고  
 櫓檣出紫薇 참창성이 자미성을 밀어냈었네.

“금과 화가 서로 바꾸어” 간다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뀐다는 뜻이다. 오행(五行)에서 금은 가을을 뜻하고, 화는 여름을 뜻한다. 이는 그 다음 구절과 함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이어 3, 4구는 공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일도 많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한 근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친구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끝에서 드러난 조선 내외의 정세에 대한 걱정이다. 이용숙은 1861년에 화창시를 지었다. 따라서 위 시에서 말한 ‘재이’는 1860년 조선에서 일어난 ‘경신사옥’일 것이다. 그리고 참창성은 혜성의 일종으로 병란 발발의 상징이며 자미성은 천자의 상징이다. 참창성이 자미성을 밀어냈다는 것은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에 침입하자 함풍황제가 열하로 피난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용숙은 바로 위와 같은 작품을 통해 당시 동아시아의 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박영보의 화시에서는 남다르게 ‘모화(慕華)’정서 표출을 통해 가을 슬픔을 구현하고 있다. 박영보는 1862년 10월에 조선에서 출발한 진하사는 겸세폐(進賀謝恩兼歲幣) 사절단의 부사로 이듬해 북경에 도착하였다. 정월 6일에 역관 이용숙이 동문환에게 시와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추회시창화 시도 함께 보냈다. 그날 동문환의 일기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는 이용숙의 소개로 동문환과 교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시를 보낸 후 정월 10일에 박영보는 아들 박봉빈을 데리고 이용숙과 함께 동문환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과거제도에 대해 마음껏

35) ‘攷’은 ‘奪’의 이체자이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으로 돌아갈 때까지 박영보과 동문환은 시를 주고 받았으며 나중에 1866년과 1868년에도 서로에게 서신을 보냈다.<sup>36)</sup>

예부터 ‘모화’는 한문화문명권에 속한 조선 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서이다. 비록 명칭 교체기를 걸쳐 조선 지식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은 정반 양면이 공존했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청나라 학문에 대한 수용태도가 자주 보인다. ‘모화’ 정서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영보의 여섯 번째 화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중화문명을 동경하는 마음이 확인된다.

(其六)

身未生中華 이 몸이 중화에서 태어나지 못하니  
 偏隅局見非 편벽한 구석에서 국량과 식견이 그릇되었네.  
 垂老未聞道 늙도록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日月交相違 해와 달이 번갈아 바뀌네.  
 秀水與新城 수수(秀水)의 주이존(朱彝尊)나 신성(新城)의 왕사정(王士禛)과 같이  
 墻壘近世稀 담장을 쌓는 일 근세에 드무네.  
 靑靄入看無 푸른 안개 속 아무 것도 안 보이는 듯하나  
 前山又翠微 저 앞산이 또한 푸름을 이루는구나.

중화문물을 흠모하는 감정은 연행사의 시에서 쉽게 확인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외교적인 멘트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박영보는, ‘가을 회포’ 내지 ‘비추’라는 문학적 범주 안에서 이러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1구와 2구를 통해 자신의 지리적 출신을 한탄하면서 중화문물을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부러움과 그리움을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3, 4구에서는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의 모화 정서를 한층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전반부는 자신에 대해 서술하고 후반부는 창화 상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수’는 절강(浙江) 수수 출신의 주이존을 가리키고 ‘신성’은 산둥(山東) 신성 출신의 왕사정을 말한다. 이 두 사람은 청나라 초기 시단에서 ‘남주북왕(南朱北王)’으로 병칭되었는데 전자는 남송시대 강기(姜夔)와 장염(張炎)을 추종하는 ‘절서사파(浙西詞派)’의 원

36) 董壽平·李豫 主編, 앞의 책, 제6권, 57면, 63~64면, 102면, 126면 참조.

조이고 후자는 ‘신운설(神韻說)’의 창시자로 시단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답장을 쌓는 일’은 ‘절서사파’와 ‘신운설’을 고취했던 제가(諸家)를 비롯한 청나라 전기 시단의 유파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문학현상을 뜻한다. 특히 청나라 함풍 연간에 이르면 시단의 유파가 여전히 분분하였지만 송시를 배우는 것이 주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문환은 그러한 가운데서 중당과 만당의 시를 배우면서 송시도 아우르는 작시 실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추회창화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박영보는 동문환의 개성 있는 작시 경향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안개 속의 보이는 푸름’으로 평가하고 그의 시를 칭찬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박영보는 동문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화시를 지어 보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동문환과의 교류를 성사하려면 이 추회창화시가 관건이었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와 문인으로써 갖춘 감식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화시에서 위와 같은 모화정서를 표현하고 동문환의 시를 재치 있게 품평하였는데, 이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박영보는 <기칠(其七)>에서도 “중국의 선비들로 하여금, 나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할 수 있을까?(倘使中州士, 亦知有吾否)”라고 하여 중국 선비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면서 역시 모화 감정을 드러냈다.

#### 4. 결론

‘비추’는 한시에서 매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정서이다. 가을은 한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에서 조락의 계절로 규정되었고 ‘슬픔’이라는 감정을 끌어내는 대표적인 자연물로 되었다. 그래서 ‘비추’, 즉 ‘가을의 슬픔’은 하나의 한시창작 주제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역대 시인들은 ‘비추’를 주제로 시를 창작해 불후의 명편들을 남겼다. 추회창화시를 지은 청나라 문인 동문환과 그에 화답시를 지은 조선 문인들은 모두 추회시 창작에서 ‘비추’ 전통을 계승하였다.

본고에서는 동문환의 추회시 8수에서 제1, 2수를 대표작으로 삼아 그것이 어떻게 조선 인사들의 공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선 문인

들의 화시 가운데 제1수는 대개 동문환의 첫 번째 추회시처럼 ‘가을의 슬픔’에 대해 개괄하였으며 자연의 무상함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연상시켰다. 하여 그들의 화시는 창시와 같은 시적 소재를 형상화하거나 동일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공감을 표출하고 창시에 호응하였다. 임치학의 창시 같은 경우에는 용사를 통해 ‘비추’에 대한 공감을 승화시켰다. 동문환의 두 번째 추회시는 탈속적인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는데 이 역시 조선 문인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이원명의 화시를 예로 들어 고찰하였다. 이원명은 창시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 용사를 통해 창시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였다.

조선 인사들의 화시는 대개 두 가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동문환 창시의 ‘비추’ 정서에 맞춰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시와 매우 다르게 새로운 면모를 지닌 ‘추회시’를 창작한 것이다. ‘새로운 면모의 추회시’는 주제 의식에 따라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우정을 노래하는 ‘교우시’ 내지 ‘회우시’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교류의 의지를 보여준 ‘자면시’이다. 이상적은 벗과 이별하는 아쉬움과 벗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회우시를 통해 가을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원명의 시는 망년지교에 대한 갈구를 드러내 전형적인 교우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조선 문인들은 창화를 통해 학문교류의 소망도 표출하였는데 특히 변원규는 네 번째 창시에 대한 차운시를 ‘자면시’로 구현하여 청나라 지식인과의 학문교류를 위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경향의 ‘추회시’는 조선 문인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특정된 회포를 읊은 시들이다. 이용숙의 국내외 시국을 우려하는 화시시와 박보영의 모화 정서를 표출하는 여섯 번째 화시가 그 대표적 작품이다.

조선 문인들의 추회창화시는 한시의 전통 주제인 ‘비추’의 정서를 대부분 계승하면서도 그들의 창안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내용을 한시의 창작에 이입시킴으로써 한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한시창작의 시대적 역량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문환과 조선 문인들의 추회창화시는 당시의 활발했던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한·중 교류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

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중 양국 문인들의 교류의 증위는 매우 다양하였으나 실제로 진정한 내면적 교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심영경이 마지막 창시에서 “얼굴 모르는 것을 원망하지 않겠으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만 걱정 뿐(不恨不知面, 只恐不知心)”이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환과 조선 문인들은 ‘가을 회포’를 통해 자신들의 내적 감정을 드러내었으며 참된 우정을 소중하게 맺고 이어갔다.

본고에서는 동문환의 창시 8수 가운데 제1, 2수만 뽑아 동문환의 시에 대해 조선 문인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화답했는지를 살폈다. 사실 동문환과 조선 문인들의 추회창화시를 온전히 파악하려면 나머지 6수에 대한 창화양상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동문환의 창시는 중당과 만당 시인을 배우면서 나름 자신만의 개성도 지니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조선 인사들 가운데서 이용숙과 변원규의 화시도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외 동문환의 추회창화시에 화답한 청나라 문인들의 작품 중에도 수작이 적지 않은데 이런 작품들을 조선 문인들의 작품과 비교하면 양국의 문학특징과 수준을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고, 추회창화시가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서 지닌 의의를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金永爵, 『邵亭稿』, 한국고전번역원DB.  
金允植, 『雲養集』, 한국문집총간 328.  
董壽平·李豫 主編, 『洪洞董氏日記六種』,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董文煥 編, 『秋懷八首和韻』,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董文煥 編, 『秋懷唱和詩·續集』, 중국국가도서관 소장본.  
董文煥 著, 李豫 輯校, 『韓客詩存』, 書日文獻出版社, 1996.  
李尙迪, 『恩誦堂集』, 한국문집총간 312.

### 2. 논문

#### (국내논문)

- 高八美, 「<秋懷詩> 11首 考釋」, 『중국어문학』 9, 영남중국어문학회, 1985, 97~125면.  
김명호, 「董文煥의 『韓客詩存』과 韓中文學交流」,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391~418면.  
劉婧, 「19세기 朝·清 문인들의 唱和詩集 『秋懷唱和詩』 연구-서지 및 편찬배경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6, 한중인문학회, 2012, 213~234면.  
이춘희, 「19세기 韓·中 文學交流-李尙迪를 중심으로」, 새문사, 2009.

#### (외국논문)

- 李雪梅, 「文章賒珠玉蕭瑟歎浮生-淺談洪洞詩人董文煥生平及其詩歌創作成就」, 『滄桑』 55, 山西省史志研究院, 2006, 111~114면.  
李豫, 「咸豐辛酉朝鮮赴京城三使臣手跡」, 『文物季刊』 3, 文物季刊雜誌社, 1993, 78~79면.  
劉夏清, 「試談董文煥在甘肅的遊宦經歷及其詩歌創作」, 『天水師範學院學報』 35, 天水師範學院, 2015, 6~10면.  
王增斌, 「簡論山西近代詩人董文煥的詩歌創作」, 『晉陽學刊』 5, 山西省社會科學院, 1991, 32~36면.  
張瑞杰, 「清代山西詩歌研究」, 蘇州大學 박사학위논문, 2016.  
夏勇, 「論清代中外唱和集的概貌與特質」, 『晉中學院學報』 28, 晉中學院, 2011, 1~5면.

A Study on the *ChuHoeChangWhaSbi*(秋懷唱和詩)  
of Dong Wenhuan and the Chosun literati

Jin, Li-Hua

Dong Wenhuan, a bureaucratic literati of the Qing Dynasty, wrote 8 poems about autumn recollections in 1861. In the serial versifying to the poems, there are 10 Chosun literati's works. In this paper, it called "*ChuHoeChangWhaSbi*(秋懷唱和詩)". The Chosun literati were Lee Wonmyeong, Lee Yongsuk, Park Yeongbo, Park Bongbin, Lym Chihak, Lee Sangjeok, Joe Hwirim, Kim Yunsik, Byoun Wongyu, Shim Yeonggyeong etc.

Dong Wenhuan's first poem expressed the motif of lamentation for autumn. The uncertainty of nature in this poem carried over to the uncertainty of life. Chosun literati's *ChuHoeChangWhaSbi* expressed the responsive chord by chanting the same material or using the same words as Dong Wenhuan's first poem. For classic example, Lym Chihak's work sublimated resonance on autumnal lamentation by using allusion. Dong Wenhuan's second *ChuHoeChangWhaSbi* tended to otherworldly mind. And this inclination also got resonance from the Chosun literati. For example, Lee Wonmyeong's poem was expressed the responsive chord by using the same words and chanting the same material as Dong Wenhuan's second poem.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t features in the Chosun literati's *ChuHoeChangWhaSbi* from Dong Wenhuan's. This kind of the pome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one is making friend poetry and missing friend poetry. The second poetry can be called 'exert oneself pome' which showed desire of academic exchange. The third one was chanted special feelings about autumn according to personal creation of Chosun literati.

Chosun literati's *ChuHoeChangWhaSbi* not only inherited autumnal lamentation of the traditional poetry, but also showed innovative features. They introduced new content into the ancient poetry creation in the new era. Chosun literati and Dong

Wenhuan's *ChuHoeChangWhaShi* not only played a historical role in ancient poetry creation of 19th century, but also showed us the communion between Korea and China during that period, which exerted a great influence on the history of the Korean-Chinese literature communication in the 19th century.

keywords: ChuHoeChangWhaShi, autumnal lamentation, ChangShi, WhaShi, Dong Wenhuan, Chosun literati.

접수일자: 2016. 9. 30.

심사기간: 2016. 10. 1.~2016. 11. 10.

게재결정: 2016. 11. 10.

